

특필기고②



김민식
광주동장교회원로목사

▶자녀호에 이어서

별 불일 없이 살아가는 도시 사람들은 이 행복을 모르리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별 불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인생이냐? 그때 깨달은 말씀이 이 말씀이다.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목회를 하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는가? 그러나 참으로 행복한 심령의 천국을 경험하고 설교했는가?

난 아니었다. 그러나 자연으로 돌아오면서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마음으로 다가오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풍산개를 사서 환희라 이름 지었다.

우리 환희가 얼마나 나에게 이쁜 짓을 하는지 모른다. 환희란 이름은 베토벤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에서 따온 이름이다. 베토벤 심포니 9번, 3악장에 보면 아다지오 부분이 나온다. 레나드 번 스타인의 지휘로 이루어지는 아다지오는

바로 그것이다.

왜 목사가 권위가 없고 그렇게 유창하게 설교는 잘하지만 허공을 치고 성도님들의 변화가 없는가?

머리에서 나오는 설교, 가슴으로 전달되지 않는 설교, 그리고 몸으로 하지 않는 설교는 성도들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목사들의 권위를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은퇴 후에 또한 사역을 하고 있다.

마을 앞에 조그만 집을 마련하여 같은 마을에 사시는 목사님, 사모님과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오신 장로님, 집사님 내외분들과 <봉수산 책 방>을 개장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책을 무료로 드리기도 하고 또한 아는 분들이 보내준 헌 옷가지를 진열하여 2000~3000원에 판매 하면서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삶의 과정과 아름다운 은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직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가려주고, 거창 읍내에서 웅양면으로 폭 뻗어 있는 일직선의 길이 나온다.

그곳을 운전 할 때는 얼마나 신나는지 모른다.

그 길을, 마을에 사시는 목사님과 함께 갈 때의 일이다. 그 목사님이 터기 여행을 하시면서 본 직가를 말씀해 주셨다. 성경에 보면 직가란 지명이 나온다.

“이르시와 일러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았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사도행전 9:11)

직가는 곧을 직(直), 거리가(街) 문자 그대로 직선으로 뚫힌 길을 의미한다.

다매섹 성의 동문으로, 서쪽으로 1.6 킬로미터나 직선으로 뻗어 있는 대로 라는 것이다.

직선으로 뻗은 거리 “직가.”

“괴로웠지만 행복한 목사”

얼마나 감동인지 모른다.

아다지오는 인간, 사랑, 자연 사랑을 노래한 곡이라 한다. 베토벤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는가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환희의 송가이다. 힐러의 사에 곡을 붙인 것이다. 어린아이 같이 아다지오를 들으며 꽃을 사랑하고 눈빛 번득이는 인간 관계를 벗어나서

참으로 인간을 사랑할 때 환희의 송가가 절로 터져 나온다.

이곳 진마루 앞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이 바뀌는 꽃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내 심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환희의 송가를 부르려는 마음이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마을 앞에 조그만 교회이다. 올해로 역사가 100년이 되는 교회다. 그러나 농촌교회의 현실이 그렇듯, 모이는 수는 30명 정도 되는 교회다.

평생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회개하는 것을 경험한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내가 죽어지는 자리이다.

그런데 현장에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지만 왜 교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가?

그것은 목사의 책임이다. 나에게 책임 있었던 것이다.

입으로만 설교를 했지 몸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현장에 있을 때 교우들은 예배 후 식당에서 남자들이

도 설거지를 모두 한다. 그런데 목사인 나는 인사하고 목회 행정을 하느라 설거지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곳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한마을에 사시는 목사님과 함께 설거지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 교회 목사님도 말하시고, 그리고 권사님들도 완강히 말리셨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목사님과 내가 감당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본인도 설거지를 하겠다고 말을 하니가 한마을에 사시는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권위가 살아나고 설교가 힘이 생긴다”고 덧붙이셨다.

이 직가에서 사도바울이 눈이 멀고 회심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행동력이 뛰어나고 실천력이 충만한 열기 방자한 청년 사울, 그런 사람이 다매섹 도상에서 시력을 상실했다. 젊은 나이에 시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는가?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난폭해지거나 정신 이상자가 되거나 자살을 하거나 폐인이 될 수도 있다.

그곳은 절망의 자리이다. 그곳은 실패의 자리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체험한 곳이다.

절망과 희망의 자리.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를 버림과 동시에 철저하게 주님을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가 직가인 것이다. 지금까지 욕망을 좇아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것이다. 그 버림과 선택을 통해 불한당 같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곳이 직가였다. 그 직가야말로 사울에게는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자

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은혜의 거리 직가...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리이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은혜의 거리가 직가였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통해 믿음을 얻고 그분을 통해 희망을 얻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곳이 바로 직가였기 때문이다.

목회에는 누구나 직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죄악 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그 능력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에게도 그러한 직가가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산책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수명을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년을 산다는 학도 알고 보면 30~40년 밖에 못산다고 합니다. 오래 사는 학이 60년 정도를 산다고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학과 함께 장수의 대명사로 알려진 거북이도 실은 100년 정도 밖에 살지 못 합니다. 대체로 장수하는 동물들이 100여 년을 살고 그 외의 동물들은 10년에서 50년 사이가 평균

수명입니다. 호랑이는 15~20년을 살며 사자도 이와 비슷합니다. 고릴라는 약40년, 기린과 물개25년, 펭귄이 20년 정도를 삽니다. 그러나 식물들의 수명으로 가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동물들의 그것보다 훨씬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약 600년 된 정2품 소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목이 되어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지만 세조 때부터 600년이라는 대단한 세월을 살아온 자랑스러운 소나무입니다. 찾아보면 아마 이보다 더 오래된 나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다는 ‘브리슬콘’이라는 소나무에 비하면 수명이 턱없이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슬콘’ 소나무 중 어떤 것은 3천년에서 4천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1957년에 에드먼

드 슬만이라는 과학자는 한 ‘브리슬콘’ 소나무를 찾았는데 그 이름을 ‘므두셀라’라고 붙였습니다.

태고의 역사를 지닌 채 거친 모습을 한 이 소나무는 놀랍게도 거의 5천년이나 된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모세가 출애굽 할 당시에도 이미 고목이었던 것입니다. ‘브리슬콘’ 소나무의 서식지는 미국 서부의 해발 3천 미터에서 3천3백 미터에 이르는 산의 정상입니다. 혹한의 온도와 사나운 바람과 부족한 공기, 그리고 적은 강수량 등 지구상의 가장 나쁜 생존 조건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 나무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열악한 환경 때문입니다. 역경으로 인해 환경을 뛰어넘는 강인함과 지구력이

연 단

생겨난 것이지요. 악기를 만들거나, 목검, 혹은 고급 건축자재로 쓰이는 흑단이라는 나무도 높은 산악지대에 서만 자란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결국에는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게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주님께 향하게 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하지

만 말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뜻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그

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나, 신앙에서 어려운 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혹독한 환경과 모진 비바람이 크고 튼튼한 나무를 길러 내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눈물 골짜기와 거친 풍야 같은 고난들이 인생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거친 비바람이 강해질수록 그것을 견뎌 낸 우리의 인생도 그만큼 아름다워 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편안하게만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그길로만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는 평안을 누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상을 모두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연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고 상주시키 위하여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수명은 100년 내외입니다. 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세월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다면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강하지도 않고 아무 모양도 없어서 땀감으로밖에 쓰임새가 없는 허드레 나무와 같은 인생은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임석인 목사
광주크리스천아카데미대표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인콜링 100일 묵상집 _ 3.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크리스천이기에 받는 고난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며 애매하게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은 경험에 있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이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늘 안정되고 편안하며 아무 탈이 없는 상황에서 살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안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누가 말하든가? 신약성경 예시지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다. 누가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가? 시편 34편 19절이 말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롭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

좀 불편하고 불안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다. 믿음이란 구석이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바울도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그

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고 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 직업인들에게 고난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고난이 있어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이 직면해야 한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고통과는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경건하게 살려는 우리 크리스천의 독특한 정체성 때문에 핍박받아야 했던 고통이다.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고통은 피하지 말고 감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일터에서 크리스천이기에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의미를 잘 깨달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본으로 삼아 침묵 정진하는 삶을 산다면 고난 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죽을 후에 얻는 천국상급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노력하자.

>>> 일하는 사람의 기도

고난받을 때 고난받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고난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어려움을 제대로 극복할지 잘 판단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소서.

본지는 위 글을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 (원문일 목사 지음/도서출판 브니엘)

“CHRIST CAN CHANGE THE WORLD THROUGH YOUTH!” 그리스도도는 십대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킨다!

제7회 청소년

영·한 성경암송대회

일시 2026년 2월 21일(토) 오전 10시

장소 광주십대선교회(YFC) 회관 (남구청 옆)
주소 : 광주 남구 대남대로 183 (4층)

- 참가대상 : 각 교회 청소년 (중·고등부)
- 암송범위 : 친구약 12구절(영·한) 기독교서점 비치
네비게이트 60구절 암송카드 중(B카드의 1-12번까지)
12구절을 Writing(필기) 및 Memorizing(암송) 테스트로 심사함.

- 시상내역 : ① “암송왕” (상장 및 장학금 100만원)
② 우수상·장려상·참가상 등

- 참가신청 : 2026년 2월 7일(토)까지 (전화신청)

참가신청서 및 암송파일 다운로드 : <https://cafe.naver.com/yfcingwangju/13>

※ 행사문의 및 신청 ☎ 담당간사 T.010-9694-7298



(사)한국십대선교회 광주지구(YFC)

이사장 남택률 / 대표 김원식

후원 : 미션21, jfc 광주지부

우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3번지(4층) 전화 : (062)369-7298, 담당간사 : 010-9694-7298

계좌 : 광주은행 016-107-312115, 농협 355-0369-7298-13 예금주 : (사)한국십대선교회(YFC) 광주지구

광주 십대 선교회(YFC - Youth For Christ) 소개

본회는 초교파 청소년 전문 선교단체로,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훈련된 제자로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되며, Teen-to-Teen 전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비전이다.

이 사역은 현재 세계 127개국에서, 한국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수원, 평택, 창원, 울산, 안산, 전주, 군산 등 12개 도시에서 청소년 전문 선교기관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광주지구는 1972년부터 송준웅 장로에 의해 시작되어, 초교파로 각계 지도자 40여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여러 교회와 개인 후원회원의 후원과 기도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사역

- ◎ 매주 토요집회(토) 오전 11시
- ◎ 영·한 성경 암송대회
- ◎ 청소년 지도자 세미나
- ◎ 장학금 수여 (연 2회)
- ◎ 학교클럽(CLC)
- ◎ Summer Camp
- ◎ Vision trip (국제캠프)

